

다문화주의에 따른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metown Terrorism Possibility and Measures in Multiculturalism

김 순 석*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다문화주의하에서의 테러리즘 억제대책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테러발생 현황과 자생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 | |

〈요 약〉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주제어 : 다문화주의, 다문화사회, 테러리즘, 자생테러리즘, 테러방지법

*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경찰학박사

I. 서 론

오늘날의 테러는 더 이상 특별한 현상이 아니며 인류역사상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으며 인류가 극복해야 할 최대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테러리즘은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제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폐쇄성과 단일성보다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는 제3세계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인종적·문화적으로 다양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인종 접촉과 인구 구성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노동시장과 경제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 자료를 보더라도 이미 탈레반 등 국제테러단체의 연계세력들이 국내에 잠입해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위장하여 암암리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2010년 3월 29일 비교적 가까운 나라에 속하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38명의 희생자를 낸 지하철 연쇄 테러가 알카에다 연계 세력으로 추정되는 자살폭탄 테러범에 의해 발생했다는 보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를 또다시 테러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인종과의 접촉 및 공존 경험이 적고, 혈통에 의한 단일 민족의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종 민족들간의 공존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포용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이에 2007년 8월에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을 다인종 사회로 규정하고,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한국 내의 다양한 인종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인종적·다문화적 가치를 위한 제도마련을 권고한 내용에서도 나타난바 있다(인태정, 2009: 340). 2005년 프랑스 방리유 사태¹⁾에서 보듯이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사회통합으로 승화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소요와 자국민에 의한 테러 문제로 변형되어(이기라·양창렬, 2007: 56) 엄청난 희생과 사회문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정치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태동된 테러는 볼셰비키 혁명, 제2차 세계대전, 중국혁명, 쿠바혁명 등을 거치는 동안 많은 변질을 가져왔다. 특히 20세기 후반 국제사

1) 방리유의 사전적 의미는 '대도시를 둘러싼 주거밀집 지역 전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는 이민 출신 청소년 비행 또는 통합의 실패를 지칭한다.

회는 빈번한 테러행위로 무고한 민간인·항공기·열차·선박·기타 제반 시설 등에 대한 암살·납치·파괴 등으로 개인의 인권 내지는 법익의 침해 등 큰 위협을 주고 있다(이동명, 2006: 122).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9.11뉴욕 테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국가도 적대적 테러세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군사안보영역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전통적인 전쟁방식에서 벗어난 유형을 선보인 21세기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다(이수형, 2003: 135).

이후 2005년 7월 7일 영국 수도 런던 시내 중심가의 아침 혼잡시간 오전 8시 51분경 런던 중심부의 4곳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연쇄폭발 테러는 다문화주의가 테러리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대테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건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스코틀랜드 글렌이글스에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개막하는 시점에 일어난 연쇄테러 공격으로 이라크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의 심장부에서 더욱이 이전의 테러 양상과 달리 군인, 정부 건물 등 경성목표물(hard targets)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 혹은 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 등 소위 연성목표물(soft targets)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주체가 아랍계 이민 2세라는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심각성과 위협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테러 피해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자본주의 환경과 미국 등 선진각국과의 공조를 통한 테러와의 전쟁 참여, 그리고 오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주의에 따르는 테러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탐색을 통하여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현상을 조망해보고 최근 발생한 다문화주의에 따르는 각국의 사회위험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뉴테러리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는 자생테러리즘의 위협 가능성과 대응책을 모색해보고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개념

1957년 다민족·다인종 국가인 스위스를 기술할 때 처음 사용된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라는 용어는 1960년대 미국의 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을 기폭제로 서구사회에서 이제까지의 국가통합정책이던 동화주의에 대항하는 정책으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71년에는 캐나다의 공식적인 사회통합 이념으로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다인종 국가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었던 다양한 소수자들과 민족 집단들의 시민 투쟁운동의 논리 또는 이념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각광을 받았으며, 근래에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이주민을 수용하게 된 국가에서 이주민제의 적절한 해법의 일환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인종, 민족 등 거시적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내의 소외계층이나 소수자, 성역할 및 기호의 차이 등 미시적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서범석, 2010: 14).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시대와 장소, 집단에 따라 사용하는 맥락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 오경석(2007: 26)은 다문화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부터 아주 정치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승용(2004: 186-187)은 다문화주의가 다루는 주제와 접근방식의 다양성이 다문화주의에 끊임없는 창조성과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로 묶어 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주의를 단순히 한 국가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로부터, 다양한 시민권 운동의 목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국가통합을 이루려는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이나 다문화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국민통합의 이념으로 보는 것 등 실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서범석(2010: 16-18)은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통해 다문화주의는 다민족·다인종 국가라고 여겨졌던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수용되어 왔던 다문화주의가 범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은 세계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인종·다민족 국가의 국민형성(nation-building) 정책 또는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한 국가 또는 사회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문화도 존중하는 이념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각국의 타민족의 유입을 통하여 한국가의 구성원의 형태가 변형된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란 다문화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질적 문화들이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태도와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국가의 소유가 하나의 특정 민족집단이 아닌 모든 시민에 있음을 인정하며, 소수집단의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주류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거부하고(Kymlicka, 2003: 28),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그리고 소수집단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주의는 바로 다문화사회의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공존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하지만 이질적인 인구와 문화

가 공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회의 주체들이 새로이 유입된 이질적 문화의 주체인 이주민을 다문화사회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존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의 사회구조는 불가피할 것이다.

2. 자생테러리즘의 개념

테러(Terror)와 동의어로 테러리즘(Terroris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두 용어의 개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테러란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극도로 불안한 심리적 상태를 말하며 자연적인 현상이다. 반면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복종을 요구하는 것, 특히 정치적 무기나 정책으로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테러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테러는 무엇이고 테러리즘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는 일반적으로 '마음의 상태로써 자연재해, 대형사건 등을 목격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게 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말하는 자연적인 현상'임에 비하여 테러리즘은 '특정함 목적 달성을 위해 자행되는 폭력행위로서 폭력 등의 도구를 조직적·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강압적 행위이며, 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대중들의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행위로서 이를 위해 강제·협박·위협 등의 폭력적 도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정의된다(오태곤, 2005: 20). 그러나 보통 테러와 테러리즘은 일상용어는 물론 학술용어로서도 구별 없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양자의 구분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은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데, '뉴테러리즘'은 1999년 미국의 민간 연구소 랜드(Rand)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로서 종래의 테러리즘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을 말하며, 9.11 테러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뉴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국가정보원, 2006: 17-18).

첫째, 종전의 테러가 상징성을 띤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공포심을 유발하여 자신들의 대의 명분을 선전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측면이 강했으나, '뉴테러리즘'은 무차별적인 대상을 향하여 최대한 타격을 가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형화 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두려움을 가중시키 된다.

둘째, 과거의 테러는 테러집단이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특정행위를 자행한 뒤에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고 요구조건을 뚜렷이 제기하였으나, '뉴테러리즘'에서는 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테러를 감행하며하고 범행 후 정체도 밝히지 않고 구체적 요구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소위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한다.

셋째, 과거의 테러는 저격용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하였고, 범행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어 일정한 대응이 가능하였으나, '뉴테러리즘'은 미국의 9.11 테러사건처럼 상상을 초월한 수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여객기 납치에서부터 빌딩에 충돌하기까지 40~5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되는 것과 같이 긴박하게 진행되어 대응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넷째, 과거의 전통적인 테러조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지배하는 수직형 체제로서 정점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테러조직을 무력화할 수 있었지만, '뉴테러리즘'에서는 그 조직이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그물망처럼 연결된 이념 결사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조직원도 거주국가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부유한 중산층 출신으로 고학력 소유자이고, 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의 유학생도 조직원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도부를 제거해도 조직의 무력화는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생테러리즘이라 함은 영국 런던에서 2005년 7월에 발생한 지하철 폭탄테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뉴테러리즘의 경향을 통해 등장한 테러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테러리즘은 테러의 주체가 다문화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자국민이며, 특히 테러조직의 형태와 관련해서 과거 수직형 체제의 조직을 탈피하여 자생적 조직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교육 및 복지혜택을 받고 자국 구성원으로서의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에 의한 테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은 그 발원이 어려우며 자국내 구성원에 의한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그 충격과 공포도 여타의 테러리즘보다 크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3. 다문화사회의 자생테러리즘 원인론

1) 상대적 박탈감이론

다문화사회에 따른 자생테러리즘 원인론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회·심리 이론적 측면에서 로버트 거(Ted Robert. Gurr)가 체계화한 '상대적 박탈감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김주훈, 2007: 19). 상대적 박탈감이론은 사회적 욕구형성도가 사회적 욕구만족도를 훨씬 초과할 경우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사회·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적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즉, 세계사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왔고, 국내적으로 지배계급의 피동적 객체였던 제3세계 민중이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박탈감의 돌파구를 폭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Ernest Evans, 1979: 18). '좌절-공격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으로 지칭되는 이 이론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된 소수민족 구성원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자국내에서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로 타국에서의 향수와 소외감을 극복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경제적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순간 폭력적인 도발의 동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다문화주의에 따르는 자생테러리즘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일시이론

‘동일시(Identification)’란 특징인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용어로서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똑같이 되려는 희망이며,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인정하려는 것을 의미한다(Schmid & Jongman, 1988: 92-93). 이러한 경우 개인은 단순히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까지도 인정하고 추종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불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의해 형성된 양극화 현상에 따라 편을 드는 과정은 소극적인 관중에 강력히 작용하여 일단은 관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양극화 행위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희생자와의 동일시에 근거한 복수심이 테러리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Nagel, 1982: 221).²⁾

결론적으로 다문화주의의 확대에 의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급증은 동일 문화를 소유한 소수 구성원들간의 동일시 과정을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이념과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동조하고 찬동하는 형태로 자생테러리즘의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현대사회구조이론

현대사회구조이론은 현대사회의 환경과 상황들이 수단으로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테러리즘에 도구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이러한 테러리즘 유발 환경요인으로는 현대사회의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치 이해관계에 따른 강대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암묵적인 묵인 등을 들 수 있다(김두현, 2004: 35).

따라서 다문화주의를 촉진시킨 세계화와 이러한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교통·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결국 자생테러리즘의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다문화주의에 따르는 인구의 이동으로 선진화되고 집중화된 도시와 상대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가지게 되는 정치적 이기주의와 무관심은 이러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폭력적 성향의 도발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동일시현상에서 발생한 테러의 실제적인 본보기로 독일적군파(Red Army Faction)의 공동 창설자 인 마흘러(Horst Mahler)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행한 베트남 농민에 대한 학살에서 야기된 것과 같이, 미국에 의해 범해진 잔악한 행위에 대한 독일정부의 소극성에 적군파로 하여금 저항과 복수에 의존하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4) 감염이론

감염이론(Contagion Theory)이란 TV 등 매스미디어가 테러리즘 행위를 확산시킨다는 연구이론을 말하는데 현대사회의 테러리즘 증가에 언론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이론 중 하나이다(김두현, 2004: 46). 이 이론에 따르면 테러리즘 행위에 대한 언론 매체의 무절제한 보도와 더불어 각 국가에 대한 상대적 차이점의 부각 등으로 인해 한 국가내의 소수 및 약소국가 출신 구성원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염이론이 자생테러리즘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시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대의 매스미디어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적어도 테러리즘을 증폭시키거나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III. 테러발생 현황과 자생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1. 국내 다문화주의의 현황 및 테러 발생 현황

1) 국내 다문화주의의 현황

한국이 다문화주의로의 인구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현재 다문화사회의 현황을 살펴 보면 우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외국인 입국자 총수는 6,823,812명으로 2007년의 6,425,257보다 전년대비 6.2% 증가하였고 2004년 5,750,545에 비해 10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표 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단위 : 명, %)

구분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체류자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인 구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인구대비(%)	1.55%	1.53%	1.86%	2.16%	2.34%

※ 출처 : 20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뿐만 아니라 외국인 총체류자³⁾는 1995년 269,641명에서 2005년 747,467명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177%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 이미 1,158,866명으로 전년도 보다 8.7% 증가하였으며 인구대비 2.34%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체류외국인 비율 가운데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국사회와 더불어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장기 체류외국인⁴⁾은 2008년 895,464명으로 2004년 491,409 보다 82%나 급증하고 있다.

<표 2>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체류자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장 기	491,409	510,509	660,607	800,262	895,464
단 기	259,464	236,958	249,542	266,011	263,402

※ 출처: 20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이러한 외국인 총체류자의 증가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인 동포의 유입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향상으로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산업연수생⁵⁾ 및 고용허가제⁶⁾ 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⁷⁾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총각과 조선족 처녀들의 결혼을 시초로, 1990년 후반 이후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이주하는 결혼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008년 현재 총체류자 중 결혼이주자는 10.6%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이러한 결혼이주자는 단순한 출입국 외국인과 비교하여 다문화사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3) 총체류자는 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 합법체류자는 등록외국인+단기체류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 이외의 외국인체류자를 의미한다.

4) 장기체류외국인의 수는 등록외국인의 수+거소신고자의 수를 의미한다.

5)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산업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 후 취업자로 전환하는 체계이다. 1992년 도입되어 국내 3D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장구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내 실업자의 구직을 위하여 이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6)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 해소의 계기가 되었다. 2004년 8월 17일 도입되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었으나, 2007년 1월 1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7) 김재윤, 앞의 논문, 373쪽.

2008년 12월말 기준 국내체류 결혼이주자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12만 2천여 명으로 2001년(2만 5천여 명)에 비해 약 387% 증가하였다.

<표 3> 인구대비 결혼이주자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 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증감률	-	37.8%	28.0%	28.5%	31.4%	25.0%	17.7%	11.0%

※ 출처 : 20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또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국제결혼 건수는 11,605건으로 2007년의 14,523건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국내 전체 결혼의 11.9%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중 12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 중 여성이 88.0%를 차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55.3%(67,787), 베트남 22.1%(27,092), 필리핀 4.7%(5,819), 일본 4.2%(5,223), 몽골 1.9%(2,325)순이다. 1980년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하여 일본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중국, 몽골, 필리핀 등으로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출신 등으로 국적도 점점 다변화 되어가고 있다.

<표 4> 국적별 결혼 이주자 현황

국적 성별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 디아	몽골	태국	미국	기타
계	112,552 (100%)	67,787 (55.3%)	27,092 (22.1%)	5,819 (4.7%)	5,223 (4.3%)	2,683 (2.2%)	2,325 (1.9%)	2,041 (1.7%)	1,558 (1.3%)	8,024 (6.5%)
여	107,799 (88.0%)	58,530 (54.3%)	26,951 (25.0%)	5,657 (5.3%)	4,708 (4.4%)	2,674 (2.5%)	2,288 (2.1%)	2,001 (1.9%)	505 (0.5%)	4,485 (4.2%)
남	14,753 (12.0%)	9,257 (62.7%)	141 (1.0%)	162 (1.1%)	515 (3.5%)	9 (0.1%)	37 (0.3%)	40 (0.3%)	1,053 (7.1%)	3,539 (24.0%)

※ 출처 : 20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한국 결혼 이주자의 또 다른 특징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2006년에 혼인한 농어촌 남성 8,596명 중 41.0%에 해당하는 3,525명이 외국여자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2005년보다 5.1% 증가한 수치에 해당한다.

이로서 한국사회는 현재 체류외국인 11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속도

로 볼 때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가 2010년 2.8%, 2020년 5%, 2030년 6%, 2040년 9.2%로 늘어 머지않아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사회로 분류하는 외국인 10% 시대⁸⁾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테러발생 현황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TC) 보고에 따르면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는 12,000여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15,700여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13,000여건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19,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11테러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오던 테러사건은 최근까지 전세계에 위협을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협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표 5> 테러사건 및 사망자 현황

연 도 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건수 (건)	11,156	14,570	14,499	11,970
사망자수 (명)	14,616	20,872	22,685	15,765

* 출처 : 미국 NCTC, <http://wits-classic.nctc.gov/> 검색일자: 2010. 6. 15.

또한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7년도에 지역별 테러사건을 보면 아·태지역에서 1,353건, 중동 지역에서 1,468건, 유럽에서 189건, 미주지역에서 49건, 아프리카에서 379건이 각각 발생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아·태지역 39%, 중동지역 43%, 유럽지역 6%, 미주지역 1%, 아프리카지역 11%가 증가였다.

<표 6> 테러발생지역 현황

	계	아·태 (39%)	중동 (43%)	유럽 (6%)	미주 (1%)	아프리카 (11%)
2007년	3,435	1,353	1,468	189	49	379
2006년	2,885	992	1,656	157	35	115
증감	+550	+431	-188	+32	+14	+216

* 출처 : 박준석, 2008: 8.

8)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의 비율 정도에 따라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라고 분류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민자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라고 부른다. 예로서 OECD 국가의 경우 이민자 비율은 프랑스(1999년 10%), 독일(2003년 12.9%), 영국(2004년 9.3%), 캐나다(2004년 18.9%), 미국(2004년 12.2%)이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한 해 동안 69개 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1/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테러가 발생, 테러위협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이와 같이 전 세계로 테러위협이 확산된 것은 알 카에다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알 카에다는 파키스탄과 아프간 국경지역에 거점을 두고 새로운 조직원 및 지도자를 충원하여 조직을 재건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공식 선전기구인 『알 샤희』을 통해 1인자인 『빈 라덴』과 2인자인 『알 자와히리』의 명의로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미국 및 서방권을 대상으로 테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알 카에다의 테러관련 성명은 2006년과 2007년에 폭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위협 발표도 있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일부국가의 민족 유입과 더불어 최근에는 아랍계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체 테러중 72.6%에 해당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의 중심에 있는 알 카에다는 산하·연계 단체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의 반정부 세력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이슬람 과격 세력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 세계 무슬림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테러조직들 간에는 비밀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무슬림을 대상으로 과격사상을 선전하는 수천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반미·반서방 테러에 동조하는 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신제철, 2009: 58).

<표 7> 테러성향 및 조직

	이슬람원리주의	민족주의	극좌	극우	기타	총계
비율	72.9	19	3.8	0.4	4.2	
건수	2,495	653	130	13	144	3,435
조직	22	28	10	1	미상	61

* 출처: 박준석, 2008: 9.

결론적으로 테러위협에 대한 안전지대는 없으며 다문화주의로 인한 타민족의 유입과 이러한 민족 구성원들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나가야하는 현실에서 테러를 비롯한 위협 방지를 위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9)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 『2007년 테러정세』 요약

2. 자생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종식과 더불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물리적 폭력 현상은 줄어들었지만 자원, 국토, 민족, 종교, 및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주의의 팽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갈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근래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테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리즘 방지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게 되었는데, 2001년 9월 12일 UN은 안보리 결의(1368호)를 통해 9·11테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규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한 테러 조직의 자금원과 병참 지원 차단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결의(제1373호 2001. 9. 28)하는 등 테러 예방에 대해 신속히 조치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상하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총회에서는 반테러 선언을 채택, 유엔 헌장 및 여타 국제법에 따른 테러 억제에 도모하고 각국이 대테러 국제 협약에 조기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APEC 차원에서도 테러 조직에 대한 자금 공급 차단 해상 및 항공 안전 운송 강화, 출입국 전산화, 대테러 능력 배양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무차별성과 잔혹성은 더욱 심화되고 조직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른바 ‘뉴테러리즘’으로 불리는 초국가적 위협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보다 더욱 조직화된 테러 단체들이 무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한 예기치 못했던 대형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테러 문제는 오늘날 국제 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이자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의해 이동이 편리해지고 세계화 경향으로 인한 이주 및 노동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타민족 및 타종교 구성원들이 각 나라마다 뒤섞이는 과정에서 테러발생의 방지와 예견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한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 7·7 영국 지하철 테러라 할 것이다.

2005년 7월 7일 영국의 수도 런던 시내 중심가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탄테러 이루어졌고 이후 조사에 의해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4명은 알카에다 사상에 동조하는 파키스탄계 이민 2세 영국인들이 스스로 저지른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독일·프랑스·호주 등 서방 각국에서 알카에다에 동조하는 이슬람 이민자들의 자생테러리즘 세력화 문제가 주요 안보 이슈로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사건 발생 2주일 뒤인 7월 21일에는 영국에 거주하는 동아프리카 출신의 정치적 망명자들이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사건을 모방하여 대중교통 시설 등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사건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범인들이 사용한

기폭장치의 고장으로 폭탄을 폭발시키는 데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으나(정우일, 2009: 192) 테러의 주체가 이슬람 세력 이외에 자국내 각종 정책과 차별에 불만을 품는 다문화 구성원들로 그 대상이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테러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영국이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사회 정책의 실패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민 2세대이면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을 자행했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 정책의 실패는 테러의 직접 요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상구, 2010: 64).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북한이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증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 관리체제 미흡 및 사회의 무관심,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 참여 등 잠재적인 테러 발생 요인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체류기한이 만료되어 잠적한 불법체류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반감을 품거나 고용주들의 차별대우에 불만을 갖는가하면 국내 교육·종교제도 등에 적응하지 못한 이민 2세 등이 반한 세력으로 성장할 위험도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순세력 및 국제 테러리즘 단체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반한 세력들이 조직화되어 이슬람 과격 사상에 경도될 경우 자생테러리즘의 주체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다문화주의하에서 테러 억제대책

1. 사회적 통합 모형에 근거한 대테러 정책 마련

2008년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70.7%, 전년대비 8.7% 증가한 총 1,158,866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체류외국인 11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증가속도로 볼 때 인구 대비 외국인 체류자가 2040년경에는 전체인구의 10%인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종, 민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대테러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통합과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대테러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정우일, 2009: 201).

과거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있어서 경찰은 중립적인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경찰이 빈번하게 인종, 민족, 계층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거나 강제하는 경찰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주의의 인권을 소중히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

회적 통합모형에 근거한 대테러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사회적 통합 모형은 대테러 집행기관이 다양한 지역사회와 장기간에 걸쳐 쌓은 신뢰와 합법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테러 집행기관과 지역사회의 이해 및 의사소통 증진과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테러리즘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테러리즘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모델에 근거한 대테러 활동은 사회적 통합과 인권보호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의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존중을 기초로 해야 한다.

2. 자생테러리즘에 관한 인식의 전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높아짐에 따라 정치, 경제 및 스포츠와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국내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10년 11월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표적인 적대세력의 타겟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고층건물, 지하철, 상수도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테러대응 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테러리즘은 근본적으로 그 위협을 발본색원 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예방과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전 방위적 예방활동은 국가주도로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테러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자생테러리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외 세력이나 소수 민족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학대에 대한 자제와 포용력을 배양하는 데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대테러 관련 개념의 재설정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우선 테러 개념, 테러단체, 테러자금, 대테러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테러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각국 및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환경이 다른 상황 하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통일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각 국의 『테러방지법』과 학자들의 테러의 개념정의에 대한 논거에 나타난 공통점은 정치적·이념적·종교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고 그 수단이 폭력적이고 폭력으로 조성된 공포심을 이용하여 국가의 정책 변경 등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금적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는 테러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현실을 고려하여 테러개념 정의에 정치적·이념적·종교적 목적을 포함하되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테러로 간주하는 행위를 원용하여 정의하고 협약의 내용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내용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테러'라 함은 "정치적·이념적·종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테러 활동이란 테러예방과 대응 그리고 사후처리 등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색출하며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후처리를 망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추적과 조사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제철, 2009: 130).

4. 대테러 방지법의 제정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자생테러리즘의 발생가능성에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국가대테러 정책을 심의하며 관계 기관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대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는 테러의 경향은 "뉴테러리즘"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테러대응체계로는 효율적인 예방과 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규정이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테러행위에 대비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인 국가안보 및 지안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테러의 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에 테러에 대한 개념규정은 물론 정부의 정책목표, 전담기구의 설치, 국가차원의 대테러 정책 심의·의결기구, 테러유관기관 컨트롤 타워, 테러관련기관 협의기구, 테러사건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 등 국가테러 대응기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을 위하여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심위 기구로부터 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한 의사전달과 집행을 위해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간의 공조수사, 테러사건 수사 및 진압이 방법과 절차, 권한의 남용방지, 테러범의 처벌 등을 포함시켜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이황우, 2010: 334).

V. 결 론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증가와 국제결혼 등으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은 세계적 추세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2008년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110만명의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다문화사회의 경우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테러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안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문화사회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테러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005년 7월 7일 영국런던 시내 중심가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탄테러 이루어졌고 이후 조사에 의해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른 4명은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다문화사회 구성원으로 밝혀지면서 독일·프랑스·호주 등 서방 각국에서 알카에다에 동조하는 이슬람 이민자들의 자생테러리즘 세력화 문제가 주요 안보 이슈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요인으로 등장한 테러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다문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현실과 이슬람 테러리즘의 테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국가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외국인의 왕래와 더불어 국제행사의 빈번한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어 테러위협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테러 위협의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테러 대응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개념 이해와 위협성 검토를 비롯하여 테러대응 조직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회전반에 사회적 약자와 약소국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포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정보원(2006). 『테러방지에 관한 외국의 법률 및 국제협약』.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 김두현(2004). 『현대 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 김주훈(2007). 『한국 대테러리즘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준석(2008). “테러 대응 정책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과제”. 『한국국가정보학회』, 5-32.
- 서범석(2010). 『다문화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신제철(2009).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9: 21-79
- 오테곤(2005). 『국제테러리즘법제론』. 샘물.
- 이기라·양창렬(편)(2007). 『공존의 기술』. 그린비.
- 이동명(2006). 테러리즘의 법적 규제. 『인문사회과학 연구』, 12: 119-160.
- 이상구(2010).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런던 테러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이수형(2003). 9.11뉴욕 테러와 21세기 국제분쟁의 새로운 유형 : 제4세대전쟁, 네트전, 비대칭전쟁. 『사회과학논총』, 19: 135-152.
- 이승용(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 연구』. 8: 177-205.
- 이황우(2010). 『테러리즘』. 법문사.
- 인태정(2009). 다문화 사회 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적 다양성 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28-351.
- 정우일(2009). 지역사회 대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9: 187-205.
-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2. 국외문헌

- Evans, Ernest(1979). *Calling A Truce to Terrorism*, Connecticut : Green Wood Press.
- Kegley, C. W.(1990). *International Terrorism*, New York: St. Martin Press.
- Kymlicka, Will(2003).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 Nagel, W. H.(1982). “A socio-legal view i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IJSL*. 8: 111-123.
- Schmid, A. P. & Jongman, A. J.(1988). *Political Terrorism : A New Guide to Actors, Authors, Concepts, Data Bases, Theories, and Literature*, Amsterdam : SWIDOC.

Abstract

A Study on Hometown Terrorism Possibility and Measures in Multiculturalism

Kim, Soon-Seok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 entry simplification measure increases many foreigners' entry and international marriage around the low income countries of southeast Asia. Those are adding multicultural phenomena to Korean society,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public order environment and leads to side effect in society. Since the 9/11 terror attacks, a sudden increase in the threat of terror has been worldwide. Besides, the threat tends toward New Terrorism and contributes to factor to social malaise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ll the possibilities of hometown terrorism by multiculturalism and suggests measures for it. To achieve this, it is required to lead the people's understanding and national participation for multiculturalism. The mature civic awareness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any others, which means th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various countries' cultures and tradi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inspect the dangers of hometown terrorism.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n urgent need for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and suppress terror through a close examination of countermeasures system of terror.

**Key Word :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society, Terrorism, Hometown Terrorist,
The Anti-Terror Law**

논문투고일 2010.4.30, 논문심사일 2010.5.17, 게재확정일 2010.6.21